

“장수 발전 위해 공직자 힘 모아달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개장

무주군, 9일 유아용·성인용 풀장 각 1조·샤워실 등 갖춰

무주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물놀이 공간인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9일 개장한다고 4일 밝혔다. 반디랜드 야외물놀이장은 다음 달초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인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브레이크 타임(12:00~13:00)을 이용해 물놀이장 내 공동 이용 시설(샤워실, 탈의실) 등의 방역을 실시한다.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767.36㎡ 규모다. 인공폭포와 유아용 풀장 1조 성인용 풀장 1조,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군은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풀장 수질 관리에도 철저을 기하고 수상인명구조원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입장객을 위해 출입구 매 표소에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며, 물놀이장 입장 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군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수지한 담당자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인력을 운영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일 이용료는 성인 8천 원, 청소년 7천 원, 어린이(4세~초등생) 6천 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성인 6,400원, 청소년 5,600원, 어린이(4세~초등생) 4,800원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주군에 주소록을 둔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반디휴양림 김도환 팀장은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은 물놀이 공간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춰 여름철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며 “아동들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첫 청원조회 실시... 민선8기 중점 국정 방향·비전 제시

최훈식 장수군수가 4일 군민회관에서 첫 청원조회를 실시했다.

최 군수는 전 직원이 참석한 청원조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먼저 적극행정, 자율·행정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마련해 혁신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원조회에서 최 군수는 민선8기 국정방향인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장수는 대한민국 변방이라는 불리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변방인 지역”이라며 “군민들이 타 지역민들과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장수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수군이 미래 농업 중심, 부자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산물 안



최훈식 장수군수가 4일 군민회관에서 첫 청원조회를 실시했다.

정자금 400억 조성, 농군사관학교 건립·운영 등의 중점 과제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도 주문했다.

군은 군수와 부군수의 신속한 소통 및 협조를 위해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한 공간으로 정비했으며, 간부회의 시스템도 보고 형식이 아닌 토론 위주의 방법으로 새롭게 개선해 모든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혁신”이라며 “장수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군민의 공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식 개최

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을 개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재선의 장정복(61)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 이종섭(62) 의원을 뽑았다.

또한 행정복지위원장에 최한주(67)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광훈(42) 의원을 각각 선출하며 9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장정복 신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장수군 나 선거구에 당선된 2선 의원으로 지난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장정복 의장은 “먼저 지지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집행부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구성을 마친 의장단은 총헌담을 참배한 뒤 최훈식 군수와 간부공무원, 전·현직 군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개원식을 진행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원선서, 의원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정복 의장은 개원사에서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를 위해 소통과 화합의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의회,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실천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초심으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위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반디누리작업장 HACCP 인증 받아

무주군은 반디누리작업장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반디누리작업장은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 원재료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모든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군은 현재 1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20명이 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16억 원을 투입해 반디누리작업장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두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품처를 다양화하기 위한 반디누리작업장을 지난 3월 신속 준공했으며, 그 결과 올해 HACCP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손동규 의원, 김명갑 의원

제9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김민규·부의장 이미옥 의원

제9대 진안군의회는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쳤다.

선거를 통해 전반기 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의장에 김민규 의원(민주당), 부의장에 이미옥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운영행정위원장에 손동규 의원(무소속), 산업건설위원장에 김명갑 의원(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김민규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며 “제8대 진안군의회 의원의 경험을 살려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구

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반기를 이끌어갈 원구성을 마친 진안군의회는 7월 5일 개원식을 열고 관내 유관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장 : 김민규 의원 6표, (동창육 의원 1표.)

부의장 : 이미옥 의원 6표, (기권 1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 손동규 의원 4표, (이명진 1표, 김명갑 1표, 기권 1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김명갑 의원 5표, (동창육 1표, 기권 1표)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운영 재개

진안군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관내 44개 경로당에서 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재개했다.

군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르신들의 활동반경이 좁아짐에 따라 신체활동량이 급감하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코로나블루(우울감) 증상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체조교실이 어르신의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도해 정서적 건강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 건강체조교실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진안읍 월랑미를 경로당을 비롯해 관내 44개 경로당에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외국인 팸투어 추진

진안군은 4월 관내 관광지의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열린 팸투어는 마이글로컬 코스개발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다.

마이글로컬 코스개발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코스 발굴을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대상 팸투어다.

팸투어에는 인도, 미국, 브라질, 핀란드, 스웨덴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8명이 참여해 가위박물관,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미로공원 등 관광지를 비롯해 진안군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비한 모습의 마이산 석탑군은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가위박물관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지역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방문자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석자들을 집중시켰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